

주간 증시 포커스

주요기업 실적발표 어닝시즌 돌입

단기 급등 코스닥시장 조정 양상

코스피·코스닥 순환매 대응 바람직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지수가 섣달이후 3인방 등 제약바이오주 차익매물 증가로 지난 금요일에만 2% 넘게 하락해 870선에 머물며 지난주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업종 간 순환매 양상을 보이며 2520포인트로 마감했다.

시장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자동차업종은 최근 원화 대비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실적개선이 기대되며 반등세를 보였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방안이 지속하며 가상화폐시장 거래대금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최고수준에 도달, 실적개선 기대감으로 증권업종이 부각됐다. 코스피지수는 실적 발표에 연동하며 업종과 개별기업 간 순환매가 예상된다.

이번 주는 최근 각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OJ(일본은행, 23일), ECB(유럽중앙은행, 25일)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의 결정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정부 당국자의 비둘기파적 발언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전자 4분기 예상실적 부진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약세를 보였는데 23일에는 LG 디스플레이, 삼성SDI, 24일에는 POSCO, 25일에는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등 이번 주에만 국내 25개 주요기업의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어닝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성과급 지급에 따른 돌발비용과 부진사업에 대한 부실처리로 불안한 실적발표시즌을 보내지만 2017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아진 상황이다. 상장사 총영업이익 규모가 2017년 3분기보다는 감소하겠지만 전년동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셀트리온 3인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하며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월 5일 신벤처마지수(KRX300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제약바이오 중심의 압축상승에서 개별기업의 실적발표와 재료보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종목이 확대되고 있다.

코스닥지수의 조정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비헝스케어주로의 순환매양상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신벤처지수 발표까지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순환매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이사대우>

수입액 2년새 34% 증가 쌀·밀·감자 등 크게 늘어 바나나·파인애플도 급증

국내 농수산물 수출 정체 피해 최소화 대책 세워야

지난해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액이 '한국-베트남 무역자유협정(FTA)'이 발효된 2015년보다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내 농수산물의 베트남 수출은 정체국면에 놓여 있어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액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트남산 수입액은 9억8000만 달러로 2015년 7억3000만 달러보다 34.2% 늘어났다.

한국과 베트남의 FTA가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기 전 평년 대비 55.5%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 베트남산 비중은 2015년 2.8%에서 지난해 3.5%로 0.7%포인트 높아졌다.

곡물 수입액도 쌀과 밀, 완두, 감자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9.6%, 전년 대비 71.4%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베트남산 곡물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FTA 발효 전 국내에 전혀 반입되지 않았거나 극히 소량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쌀(131.4%), 밀(74.7%), 식물성유박(1880.6%), 완두(373.2%), 감자(152.7%) 등이다. 식물성유박(油粕)은 기름을 짜고

남은 껍의 찌꺼기로, 유기질 비료의 재료로 사용된다.

채소류 중 오이(168.6%)와 당근(152.1%), 고추(74.7%)도 FTA 발효 전보다 수입이 크게 늘었다.

특히, 바나나 수입량도 2015년 179.1에서 지난해 3797.5t으로 20배가 넘는 2020%가 증가, 파인애플도 0.1t에서 15.4t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물 수입액은 2015년 18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400만 달러로 33.3% 증가했다. 기타양모, 조수모 등의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2.6%가 늘어난 것으로, 전년과 대비해서는 47.8%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한편, 한국과 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은 정체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0월 베트남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액

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고, 수출 농수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31.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채소·과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등의 국내보완대책을 활용해 수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FTA 타결로 베트남산 농수산물의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간소화 등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해 베트남을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연합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워크숍'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18 경제사업 협력회 지원 전남연합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전문마케터 45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연합사업 취급액 2955억원 보다 10% 성장한 3300억원 달성을 다짐했다. 연합사업은 소규모 농가 조직화와 지역 농협을 묶어 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농협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 관내 17개 시·군에 통합마케팅조직인 연합사업단 12개소와 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 5개소

를 육성, 전남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남도 정영수 팀장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남도의 정책설명,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나중대 국장의 '농가 조직화 전략',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팀 홍성준 과장의 '대외마케팅 활성화 전략' 등 강연도 열렸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의 연합사업조직이 책임지는 유통시스템 구축할 것"이라며 "농민들은 맘 홀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고 농가소득 5000만원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식품부, 농촌 위급 대처 응급처치 전문인력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장 등 마을대표, 농촌체험마을·농촌유학 센터 관계자, 취약계층 관리자 및 일반 농업인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 사업은 농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됐다. 농촌 지역 의료시설은 도시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시설 이동 평균 소요시간 24분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다.

농식품부는 참가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 'NH농협카드' 가입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맨 오른쪽)는 지난 19일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맨 왼쪽) 객장에서 'NH농협카드' 신규 론칭에 맞춰 관내농협 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NH농협카드에는 신용이나 체크카드에 면세유 카드, 농업경영체카드 등 농업인 전용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최초 카드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1만1000원~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농촌형, 도시형과 가맹점 업종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0.5%~최대 1%까지 할인해주는 일반형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신용카드 이용액의 0.05%, 체크카드 이용액

의 0.02%를 카드 공익기금으로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보이스피싱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고령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NH농협카드'가 농심(農心)을 대표할 수 있는 카드상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드발급은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또는 전화 1644-4000.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물 오픈 기념 최대 68% 할인... 설 선물 특가전도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농협물 오픈을 기념해 최대 68%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오픈 한 농협물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점포 픽업·스캔&고(Scan&Go)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지역별 테마관을 운영하는 동시에 G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쇼핑몰과 농

산물 공급 제휴를 맺어 우리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농협물은 오는 29일부터 15일간 '설 선물세트 특가전'과 '설 쿠폰북'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활용해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식품 전문 쇼핑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Advertisement for SONGDO construction company, featuring a hand holding a card with a cityscape background. Includes contact info for Songdo Construction and a list of regional branches.